

# 나의 농민운동 이야기, 과정과 반성

김종길(전 경북기독교농민회 총무)

## 들어가면서

1985년 4월 중순. 나는 경북 의성군 춘산면 효선 2리에 사는 김영원 장로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먼저 전화 연락을 드렸기 때문에 가는 길은 대강 알고 있었으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탐리에서 효선리로 가는 빠른 길을 놓치고 의성읍에서 택시로 효선리에 왔으니 초행길의 번거로움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이때쯤 효선 2리는 산수유 꽃이 흐드러진 멋진 계절이지만 김영원 장로님 댁을 찾는 것이 급하기도 하고 시간도 늦은 편이어서 그 때는 주변의 풍치에는 미처 관심이 닿지 않았다. 다행이 2-3명을 만나 길을 묻는데 “내가 바로 김영원이요” 하고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장로님을 만나 뵈게 되었다. 이것이 나와 김영원 장로의 첫 만남이었고 또한 농민 운동에 참여하게 된 원인이자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그 날 밤 나는 김영원 장로님으로부터 한국 농촌 농민의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내가 아는 상식적 수준과는 비교 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생한 사례들이어서 그 날 밤에서야 비로소 농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농민 운동의 필요성에 눈뜨게 되었다고 하는 편이 오히려 알맞은 표현일 것이다.

사실 내가 아는 농민 운동의 지식이래야 함평 고구마사건이 유일한 내용이었으니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었다고 할까. 당시 농민 운동의 최대 이슈는 소값 폭락문제였는데 잘살아 보겠다고 키운 소값이 사료값도 충당 못할 정도로 폭락하자 이로 인하여 농민의 자살이 속출하였으며, 전남 함평에서는 어느 농민이 장날에 자기 소를 도끼로 찍어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농민은 이 땅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정책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변방의 사람들이다. 오늘에 와서야 농민 운동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고 어느 정도 위상도 확립되었으며 농업, 농민의 현실에 대한 농민단체사이의 공감대도 상당부분 형성되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농민 운동 지도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곧바로 경찰, 공안 당국의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는 으스스한 공포와 독재의 시기였다.

김영원 장로님과 이야기가 끝나자 그 때 장로님 댁에서 요양 중이던 판화가 이철수 화백이 슬쩍 손길을 잡아 비로소 술을 한잔하면서 또 다른 대화를 나누는 뒤늦은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확신을 서로간의 대화로서 공감대로 확인하는 것이 일종의 상견례요, 통과례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1985년 5월1일부터 경북 기독교농민회 총무직을 맡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농민 운동에 첫 발을 디게 되었다.

## 농민회 교육의 필요성

모든 운동은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중요성은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나는 자진해서 농민회 교육을 받게 되었고 교육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농업, 농민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주의 오덕훈 형제를 만난 것은 운동가로서 최대의 기쁨이요, 행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덕훈 형제는 지금은 결혼도 하고 나이도 있고 해서 의젓한 모습이지만 당시에는 항상 검은 고무신에 군복 색깔의 전투복을 입고 약간 더듬는 어조로 특유의 유머 감각을 발휘하여 교육장이건, 투쟁의 장소이든, 뒤풀이 때든지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독특한 자질의 사람이었다. 한번은 경찰 수십 명과 농민들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오덕훈 형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전개하던 중 듣고있던 경찰과 농민들이 다같이 박장대소를 하다가 서로간 대치국면을 풀고 무사히 현장을 벗어난 적도 있었다.

1985년 6월경부터 나는 오덕훈 형제 뿐만 아니라 경북 기농의 거의 모든 회원들을 농민 교육 장소로 소개하게 되었는데 성주의 최진국, 박정서 노병식, 배운호, 구미의 정택동, 권찬동, 안동의 김석현, 이원희, 상주의 오덕훈, 오정섭, 등등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강요하다시피 농민 교육으로 안내하였고 똑같이 2박 3일, 또는 1박 2일씩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교육받고 단련 받은 것이 십여 회에 이르렀을 때쯤 나는 점차 단단하고 완고한 농민운동가로 변화되었고, 비록 때때로 고달픔과 배고픔은 있었지만 곧바로 열정을 회복 할 수 있었으며, 은근과 끈기를 시종일관 유지할 수 있었으니 실로 농민교육은 내 삶의 또 다른 자양분이라 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2-3명의 농민이 있는 곳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멀리 경남 창원, 의령, 거창, 경북 경주, 청송, 고령, 봉화 등등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항상 현장으로 달려가곤 하였다. 교육받은

회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수록, 경북 기농은 조금씩 성장하였고 회원들의 자신감도 그 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로 온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모든 운동의 주체는 사람이요, 그 중에서도 교육을 통하여 자기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사람들이라면 모든 두려움을 떨쳐 내고 억압받는 삶에서 역사의 주인으로 진보와 개혁의 대열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 경북 최초의 투쟁 -상주농민 대회

상주군농민회는 오덕훈 형제를 비롯한 외서면 봉강리 농민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1987년 봉강리에는 40여명의 계명대 학생들의 농촌 활동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도 처음 하는 농활이었지만 당시에는 문교부 장관이 대학생들의 농활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터라 여러모로 탄압과 감시가 심했다. 그러나 봉강리에서는 오정면 회장과 오정섭, 오덕훈씨 등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농활을 유치하였다. 그런데 봉강리 초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애향단 간부들에게 대학생들이 마련한 모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활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학교에 와서 이르도록 하였다. 농민회에서도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교 교장에게는 물론 교육장, 경찰서장, 군수 등에게 “이러한 일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이는 너무나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닌가?”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오정섭 회원이 무고죄로 구속되었고, 상주농민회에서는 전체회의 끝에 더 이상 밀리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주 시내 중심가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당시 상주 농민회는 기껏해야 회원이 20명 정도, 경북 기독교농민회 라야 40-50명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조직의 사활을 건 항의 집회라 할 수 있었다.

집회 당일 날 약속한 시간이 됐지만 모인 회원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인근 군 농민회에서 10여명, 계

명대학교에서 10여명이 합류하여 총40명으로 집회를 강행하기로 하였다. 그 대신 단호하게 싸우기로 하고 경운기 두 대를 앞세우고 모든 참가자들이 죽창, 곡괭이 자루 등을 준비했다.

조용한 상주시내가 농민들의 함성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농민 운동 탄압하는 군부독재 각성하라!”, “농가 부채 탕감하라!”, “수입 개방 저지하여 농민 생존 쟁취하자!”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회원들이 나가자 집회가 열릴 줄 모르고 낮잠을 즐기던 경찰들이 허겁지겁 뛰쳐나왔다. 앞장서 있던 젊은 회원들이 곡괭이 자루를 휘두르자 기세에 눌린 경찰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경찰이 없는 상주시내를 2시간 여 동안 스크럼을 짜고 다니며 농민 문제해결과 구속자 석방, 농할 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니 첫 집회로써는 일단 성공이었다.

상주농민 대회는 몇 가지 신화를 남겼는데 당시로는 최소 규모의 인원으로 최장시간(적어도 2시간 이상) 한 장소에서 거리집회를 하면서 대열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명의 연행자도 없었던 것은 가히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대응 능력의 부족보다는 우연과 행운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였다. 경찰은 예상 못한 집회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대열을 해산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수십 발의 최루탄을 발사하였는데, 바람의 방향이 경찰 쪽으로 향하면서 오히려 경찰들이 도망가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또 하나의 기록은 몇 개군 단위에서 농민 20여 명, 대구의 여러 단체를 만나면서 대회를 준비하였는데 보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일은 잘 훈련된 학생운동에서도 드문 일이고 경험 많은 농민회에서도 힘들 정도였는데 집회가 계획되면 어떤 경로로 아는지 잘 모르지만 거의 90%정도 사전에 경찰이 집회의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였다. 경찰의 정보 파악 능력이 이 정도 수준인데도 영성한 준비에 비하여 완벽한 보안이 유지된 것은 연락 받은 회원들과 지원하러온 모든 참가자들이 조직의 사활을 건 대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이

리라....

한 명의 연행자도 없이 거리집회를 마친 후 상주농민회원들과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인근 지역 농민들은 상주시내의 서문동 성당에 집결하였다. 오정섭 회원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상주군 최초의 농민대회인데다 성당에서는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십 명의 예상 못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고, 경찰이 수백 명 동원되어 성당외부를 봉쇄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안동교구의 유강하 신부님(현재 상지대학 총장)이 현장에 달려오고, 김영필 주임 신부님은 긴급 신도회의를 소집하는 등 서문동 성당은 삼시간에 비장감이 감도는 투쟁의 장소로 돌변하게 되었다. 처음, 경찰은 해산하면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태도였는데 도경으로부터 병력을 증원받자 강경한 자세로 입장을 돌변하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회원을 연행하고 성당을 둘러싸더니 곧 쳐들어 올 태세였다. 바로 이때 서문동성당 신도회에서 참으로 귀한 결정을 내려주었다. 비록 농민들 중에 신자는 1명뿐(오덕훈 회원)이지만 농민들의 성당진입은 '긴급피난'이므로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실제 신도회장님은 우리들에게 와서 "여러분 걱정 마시고 얼마든지 있다가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언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서울에서 중앙 상임위원회를 열던 전국 임원들이 관광버스 두대를 전세 내어 상주 서문동 성당으로 내려왔다. 이분들은 경찰서로 향의 방문을 갔다가 다음날 새벽 각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다음날 상주시내가 발칵 뒤집혔다 곧 전국에서 5000명 아니, 1만 명이 상주로 몰려 올 것이라는 소문이 돈 것이다. 경찰에 동원 됐던 회원이 보니 경찰들이 얼굴이 노래져서 긴장하고 전화 받는 정보계장이 부들부들 떨더라는 것이다. 결국 오정섭 회원도 풀어주고, 이날 다리를 크게 다쳤던 김정욱(의성)회원의 치료비를 물어주는 조건으로 이 싸움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한번의 싸움으로 상주기농은 경찰들의 기를 꺾고, 경북기농의 기를 다지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 후 오정섭 회원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 일로

재판정에 있던 어느 변호사께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내용에 분노하여 무료 변론을 자청하였고, 결국 무죄로 확정되었다.

이후 사기가 오른 경북 기농은 속속 농민대회를 진행하였다. 9월의 상주대회 이후, 10월 들어 영주 농민집회, 성주 농민대회가 계속되었다. 10월의 성주 농민대회는 노병식, 박정서, 배운호, 최진국 동지들이 중심이 되어 성주 가톨릭농민회와 처음부터 논의하고 협력하면서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오후 2시부터 각지에서 몰려든 농민 70-80명이 성주 읍내에 쌀값, 소값 폭락과 수입 개방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흥분한 농민들이 군청으로 집결하게 되었다. 군청으로써는 처음 당하는 수모에 당황하여 속수무책으로 있었고, 군청 옆에 바로 경찰서가 있었는데 경찰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대회가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갑자기 인근 군부대의 훈련받은 수백 명의 병력들이 군청으로 대열을 유지하여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결국 회원들은 인근 성주 성당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경찰과 농민회는 대치하였고 농민들은 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3일 만에 가톨릭 교회의 노력으로 경찰이 대치를 풀었고, 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모두 귀가하였는데 경찰은 그 보복으로 노병식 동지를 맞보기로 구속하였다.

이제 경북기농은 한 사람의 구속으로 흔들릴 수 없는 탄탄한 기반으로 유지하게 되었으며, 대구경북 민주화운동대열에서도 당당한 주체로 서게 되었다. 대구 지역단체에서는 무료 변론을 주선하였고 경북기농의 주역들은 농민운동탄압에 항의하는 집회를 대구에서 개최하였다. 먼저 그 해 11월 EYC와 대구 NCC의 협력과 주선으로 기독교 방송국 건물 안에 위치한 EYC 사무실에서 농성을 준비하였다. 최진국, 김영원, 김성순, 박정서 등 성주 농민들과 경북의 지도력들이 단식으로 항의하였고 이 소식은 기독교 방송의 전파를 타고 뉴스와 함께 인터뷰 내용이 육성으로 소개되었다. 그러자 경찰은 농성해산을 애원하다시피 하였는데 이때 도경 간부들과 협

상하면서 독재의 두 얼굴 즉, 엄하고 강경하고 딱딱한 모습과 노회하고 슬프고 애처로운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 이어서 대구민통련사 무실 농성 등 계속적인 항의 집회로 경찰을 압박하여 결국 노병식 회장은 석방되었다.

1988년 들어 나는 경북 기독교농민회 총무직을 사임하고, 대구 지역 여러 단체의 요청으로 대구, 경북지역 민주화 운동단체간 통합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나는 농민 집회는 빠짐없이 참여하였는데 1988년 10월, 경북 청송, 영양, 안동 등지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간 고추 값 하락에 항의하는 소위 '고추투쟁'은 가장 감동적인 투쟁으로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최대 규모는 안동 투쟁인데 내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안동군청을 거의 농민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군청 직원들 보다 농민들이 더 많을 지경이었다. 그 속에서 농민들은 대열을 유지하고 고추 값 폭락에 항의하는 집회를 계속하였는데 경찰의 진압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되었다. 그 전 해에 고추 값이 제법 보장된 탓이었는지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난 데다 정부에서는 고추 값 안정을 이유로 수입량을 과도하게 확보하게 되자 1988년 고추 값은 그야말로 똥값으로 급락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 청송, 영양, 의성 등 경북북부지역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저항은 제천, 영동, 나주, 함평, 원주 등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처음 농민들은 장터에서 고추 푸대를 열고 고추를 불태우는 자학적인 형태로 싸움을 시작하였으나, 날이 거듭되면서 농협 마당이나 군청에다가 고추 푸대를 쌓아놓고 가격보장을 요구하는 적극적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마침내 농민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여야 정치권, 청와대, 정부청사 앞에 고추 푸대를 쌓아 놓고 가격보장을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987년 단일화 실패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기회를 놓친 분노까지 겹쳐 동교동에도 상도동에도 고추 푸대가 전달되고, 여 야 정치권은 이러한 농민들의 분노에 대해 아무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농민들은 대학가와 일부 교회, 성당, 사찰들을 통하여 일부를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그 양은 가져온 분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 과정 그리고 반성

1985-87년까지 농민운동의 최 일선에서 활동해온 사람으로써 몇 가지 아쉬움을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상 활동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짐작하겠지만 나는 농민 운동가로서 꽤나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활동 면에서도 유능했다. 말하자면 '성공한 농민 운동가'였다. 그러나 기독교농민회 총무로써 나의 활동은 아무리 후하게 평가하더라도 실패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반성은 교회와 함께 하지 못했고 그들의 신뢰와 동의를 얻는데 소홀하였다. 기독교농민회라면 교회와 기독교 신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활동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데도 그 당시 경북 기독교농민회는 그러한 노력보다는 곧바로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갔고 전국농민회 결성을 목표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지나치게 투쟁 중심적이어서 회원들은 극히 소수에 머물렀고 용기 백배한 소수가 참여하다보니 농민운동의 큰 뜻에 동의하더라도 뒤에서 박수치는 사람은 많아도 선뜻 참여하는 농민들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특히 경북에서는) 수를 손꼽을 수준에 머물렀다.

일반 농민들의 반응이 이렇할진대, 보수적 경향이 강한 경북 농촌지역 교회의 신자들의 동의와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시 경북농촌지역의 교회와 신자, 목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올바른 활동 방향 아니었을까?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기도회를 열고, 농촌의 실정을 알리는 세미나, 강좌를 열면서 열심히 교회, 신자, 목회자들의 신뢰를 확보하

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지금 생각해보니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의 활동영역을 확보한 후에 도시교회와 직거래운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본다. 만약 이러한 방향에서 활동을 지속했다라면 지금쯤 기독교농민회는 교회와 신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신뢰를 구축했을 것이고 목회자와 교단 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획득했을 것이다. 만약 그러했다라면 1988년 고추투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도시교회를 통한 고추 판매는 상상을 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리라.

농촌에서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금 농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극단에 이르면 농촌교회, 농촌목회의 어려움 또한 극단에 이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다. 농민과 농업 농촌이 살아야 농촌교회도 살고 농촌 목회도 있는 것이다. 오늘날 농민의 삶과 농촌 교회의 미래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야말로 일심동체인 것이다.

이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상호 협력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목회자의 생활비나 교회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실제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농촌, 농민의 삶에 어느 정도 활기를 불어넣는 적극적 수준으로까지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직거래운동이다. 직거래운동을 통하여 농민은 비싸게 도시사람에게 농산물을 팔고 도시사람들은 싸게 농산물을 구입하려는 경제적 목표에서 출발한다면 둘 다 실망만 하게 된다. 직거래운동은, 도시인은 농민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민은 적당한 가격에 건강한 먹거리를 도시인들에게 제공하는 “사람과 사람이 얼굴과 인격을 맞대는 운동”이다. 우선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자매결연을 맺는데서 출발하여 서로의 삶에서 아픔과 어려움까지 공감하고 서로를 구원하려는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되어야 비로소 성과를 맺을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직거래운동인 것이다. 이상적인 직거래운동은 아직 현실에서 적

절한 예를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운동이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몇 가지 사례가 분명히 엄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의 삶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직거래운동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운동이며 그 미래는 밝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이 운동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직거래운동은 한국에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감히 확신한다.

두 번째로 반성할 과제는 당시의 활동은 농민운동적 관점에 중심을 두었고 농업이나 농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미국 농수산물 수입저지가 최대의 투쟁 목표였지만 지금에 와서보면 호주산 쇠고기, 칠레산 농산물, 중국 농산물 수입의 폐해 또한 미국 농산물 못지 않은 수준에 이르지 않는가? 오히려 지금은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한국의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농민 운동도 반대- 반대- 반대만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단선적 형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즉, 농민의 경제 정치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민 운동의 1차적 목표달성을 위한 주류 운동 외에도 새롭고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농민운동의 방향이 이제 농업운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의 농민운동의 주류 외에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본다. 아무리 우리 정부에게 농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WTO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산품 수출에 목을 매고 있는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농정목표가 전업농 육성, 농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농민운동 차원에서도 이제는 농업의 경쟁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추세라고 보여진다. 또한 외국의 어느 혁명적인 농민운동단체에

서도 품종개선이나 수확량 증가, 육종 등 농업개선에 상당한 관심과 비중을 두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니까.....

대안이라면 우선 생명농업, 환경농업의 육성을 들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우리 농민운동 일각에서는 일찍부터 생명농업,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소수의 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금까지 상당한 경험과 방도를 축적해 온 바 있다.

수세기에 걸쳐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후유증으로 오늘날 환경문제는 지역과 국가를 넘어 또한 선진국과 후진국을 망라하여 범세계적이면서 전지구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환경문제는 단순히 자연환경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 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페러다임의 문제인 것이다. 유기농업운동은 흙과 물, 공기,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건강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운동이다. 그러자면 화학비료를 쓰지 않아야 되고 농약도 최소한도로 제한해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야 농약과 화학비료에 찌든 땅을 살려내고 땅심을 회복하여 농작물 스스로의 저항력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각종 세균과 질병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농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근본에 두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농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기도 하다. 또한 생명농업은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신비한 능력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하며, 또한 과학적 탐구정신을 결여한다면 원시농업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처럼 들리기도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환경문제는 지구의 위기라기보다 인간생명의 위기와 직결된다고 본다면 생명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란 결국 무엇인가? 지난 수 세기동안 인류는 더 잘먹고 더 잘 살기 위하여 들판과 숲을 메워 공단과 도시를 만들면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인류가 경험한 것은 수질과 토양, 대기의 오염이었으며, 국토의 난개발, 사막화의 확대와

같은 개발의 역기능이었다. 사람이 물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물을 마시고 몸이 병들고, 또 치료를 위해 약을 만드는 악순환을 경험하면서 인류는 지금 너무나도 값비싼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생명 농업 외에도 찾아보면 대안은 많다. 끊임없이 농산물의 질을 높이려는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인 무수한 노력들, 농업과 문화와 축제를 결부시키려는 노력들.... 농업과 마케팅, 농업과 요리, 농업과 디자인을 연결하여 생각해본다면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농촌목회자들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 농민목회와 농촌선교를 담당하시는 목회자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보내면서도, 그래도 부탁이 있다면 그것은 농촌의 공동체정신을 회복하는데 목회자들께서 앞장서 주십사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농촌을 분열시키는데 도시화와 산업화 못지 않게 교회도 일조를 했기 때문이다. 작은 한 마을에 교회가 둘 있는 것은 한국 개신교의 부끄러운 단면임에 틀림없다. 이제는 목회자와 교단들이 나서서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지워 나가야한다. 아니 점점 붕괴되는 농촌의 공동체정신을 교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농촌의 목회자들이 앞장서는 아름다운 정경들을 보고 싶다. 농민운동을 떠나 도시에서 살면서 더욱 더 농촌의 공동체정신 이야말로 인류의 희망이라는 생각에 젖어들곤 한다.

“도시는 꽃, 농촌은 뿌리,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든다.” 그렇다! 농촌이 잘살아야 도시도 잘살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연결되어 상생하는 그 날이 꿈으로써가 아니라 현실이 되기를 기도한다.